

‘다둥이 부모’ 김진수·서혜정 군인 부부

# “오둥이 육아, 매일이 전쟁이지만... 행복한 전시상황이죠”

“놀이터 갈까?”

지난달 30일 오전, 주말을 맞은 아빠 김진수(33)씨가 물었다. 맘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에 흩어져 놀던 다섯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들었다. 양팔과 다리에 한 명씩 매달려 빨리 나가자고 아우성이다. 첫째 소현이는 어느새 오색 양말을 한아름 안고 와서 동생들 앞에 던져 놓는다. 열 개의 고사리손이 색색의 양말을 주워간다. 엄마 서혜정(33)씨는 “나머지 넷은 서로 이름을 부르는데 소현이에게만은 ‘언니’라며 맘이 대접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18일, 국내에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1991년생 동갑내기 군인 부부인 김진수·서혜정씨의 자녀인 소현·수현·서현·이현·재민이가 그 주인공이다. 임신 28주 만에 태어나 몸무게 1kg 안팎에 불과했던 다섯 쌍둥이가 어느덧 28개월을 맞았다. 평균 몸무게도 13kg에 육박한다. 신생아 시절 목욕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던 ‘오둥이’ 부모도 그새 육아 베테랑이 됐다.

국내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 출산 기록 “이거 빨간색은 누구 거야?”

엄마의 물음에 셋째 서현이가 힘차게 손을 든다. 똑같은 양말인데도 저마다 주인이 다르다. 넷째 이현이는 어제 입었던 파란색 외투를 둘째 수현에게 뺏겨 속이 상했다. 아빠가 이현이를 달래는 사이 막내 재민이는 신었던 양말을 다시 벗는다. 옆에 있던 서현이도 깔깔거리며 양말을 벗어 던진다. 입히면 벗고, 신기면 던지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집 앞 놀이터 한 번 나가는 데 준비 시간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아이들의 ‘5단 분리’가 익숙한 듯 서씨가 말했다. “어린이집이 걸어서 3분 거리인데 무조건 차로 등하원해요. 걸어가면 30분도 넘게 걸리거든요.”

-처음부터 다자녀를 계획했나요.

김진수=“연애 때부터 세 명은 낳고 했었어요. 저희 둘 다 삼남매인데 형제가 많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서혜정=“애들 고모가 태몽으로 악어떼가 나오는 꿈을 꿔요. ‘하나는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다섯 명이나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웃음).”

-육아하며 가장 힘들었던 때는.

김=“올 초에 애들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였어요. 막내가 먼저 아파 입원했다 퇴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첫째, 둘째, 넷째가 한꺼번에 입원했죠. 병원에서 아이 한 명당 보호자 한 명이 돌보는 게 원칙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 둘이서 아이 셋을 간호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남은 두 아이를 보셨고요.”

-아이가 다섯이라 힘든 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서=“가족이 다 같이 어디 펜션이라도 놀러 가려면 사전에 꼭 문의를 해야 돼요. 대부분 인원 기준이 4인 가족에 맞춰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좀 크면 인원수 제한이 없는 캠핑을 다녀볼까 해요. 저희 둘 다 텐트 치는 건 자신 있거든요(웃음).”

서씨는 약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2월 복직했다. 군인의 경우 자녀 한 명당 1년의 유급 휴직을 포함해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아이가 다섯이니 산술적으로는 15년간 휴직도 가능하다. 서씨는 “지금부터 써도 다투 쓸 정도로 길지만 현실적으로 15년을 쉬는 건 불가능하다”며 “경력 단절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에 있던 김씨도 “아이들이 10개월쯤 됐을 때 근처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수월하게 복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씨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대전 소재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주말부부 신세가 됐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다섯 쌍둥이를 아빠와 진찰하며,

부부 모두 삼남매, 3명은 낳자 생각

인공수정 통해 임신 28주 만에 출산 28개월 아이들, 외출 준비만 1시간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네...

부모·조부모 희생없는 양립 불가능 첫 아이 키울 환경 돼야 둘째도 생각

24개월 이후에도 지원 필요

박물관 등 입장료 24개월부터 받아 소액이어도 자녀들 많으면 부담돼



2021년 11월 김진수·서혜정씨 부부의 다섯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 모습. <중앙포토>

돌봄도우미가 함께 돌본다.

-아빠 혼자 다섯 명을 돌본 적도 있다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김=“힘들죠. 그런데 딱 하루만 지나도 힘든 건 잊혀지고 좋았던 감정만 남아요. 아내와도 항상 즐겁게 아이들을 키우자고 다짐하곤 하죠. 퇴근 후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면서 어느새 요리 실력도 늘었어요. 제가 해준 김치볶음밥을 제일 좋아해요. ‘매어 매어(매워 매워)’ 하면서도 식판을 싹싹 긁어먹는 아이들을 보면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서=“인기투표를 하면 아빠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할머니랑 선생님(돌봄도우미)이에요. 주말에만 보는 저는 순위권에도 없어요(웃음).”

-그럼에도 주변에 다둥이 출산을 적극 권유한다면요.

김=“아이가 하나여도 육아가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애가 다섯이어서 다섯 배로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아이 한 명당 ‘0’이 더 붙어서 10만 배로 행복할까. 연령이 같으니 발달 과정이나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 편한 것도 있고요.”

서=“서로에게 평생 친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간식을 한 명에게만 주더라도 절대 혼자



다섯 쌍둥이 가족이 주말을 맞아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쪽부터 엄마 서혜정씨, 이현·소현·재민·서현·수현, 아빠 김진수씨. /최기용 기자

먹는 법이 없어요. 아직 아기지만 형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뿌듯해요.”

-아이 숫자에 맞춰 돌봄도우미를 추가하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서=“출산 후 산후도우미는 두 분이 오셨어요. 저희 애들이 태어난 해엔 다둥이 가정이라도 최대 두 명까지만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도 언제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오실 분 있냐고 물어보고 추가금도 냈

어요. 그런데 대부분 금방 그만두시더라고요. 도우미 한 명당 아이 한 명만 보면 되는데 저희 집은 다른 애들도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월급은 같은데 돌볼 아이는 많으니... 그분들이 꺼리는 것도 이해가 돼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 2022년 0.78명보다 더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질수록 역으로 출산 지원 정책은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을 강화해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씩 증액 지원한다. 현행 태아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었던 게 태아 수에 맞게 바뀌는 것이다.

최대 두 명이었던 산후도우미도 늘려 신생아 수에 맞춘다. 올해 태어나는 다섯 쌍둥이가 있다면 다섯 명의 도우미가 붙게 되는 셈이다. 서씨는 개선된 정책에 대해 “정말 잘됐다”면서도 “저출산 대책이 신생아 가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까요.

김=“출산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지원 제도는 매년 늘어나지만 24개월 이후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수년째 월 10만원(어린이집 보육비 제외)의 아동수당이 전부예요. 거창하진 않더라도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예컨대 대부분의 놀이 시설이나 박물관 등이 24개월부터 입장료를 받거든요. 소액이어도 자녀가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다둥이카드도 이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여성 입장에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도 조부모의 희생 없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일과 가정 모두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느껴야 두 번째, 세 번째 출산도 시도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쌍둥이 이상 보험 정책 등 개선되길 -다둥이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김=“다둥이 가정은 난민 시술부터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인공수정을 통해 다섯 쌍둥이를 안고요. 정말로 출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민 시술 지원이 늘어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도 당장 다둥이는 보험 가입부터 벽에 부딪혀요. 임신 때 알아보니 세쌍둥이 이상은 보험사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애들이 극소 저체중아로 태어나 100일 될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았죠.”

서=“다둥이는 대개 36주를 못 채우고 조산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요. 정기적으로 1인당 15만원 정도의 발달 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최근 네 명의 아이들을 나흘 입원시키는 데 병원비가 12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나마 군 단체보험에 아이들이 가입돼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장난치던 다섯 쌍둥이가 어느새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다. 일렬행대로 골목길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뒷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이들과 속도를 맞춰 걷던 김씨가 “이렇게 다섯이 손잡고 자라면 설명 누군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웃었다. “매일이 전쟁이라면 평생 고군분투해야죠.”

/허정민 기자 jypower@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